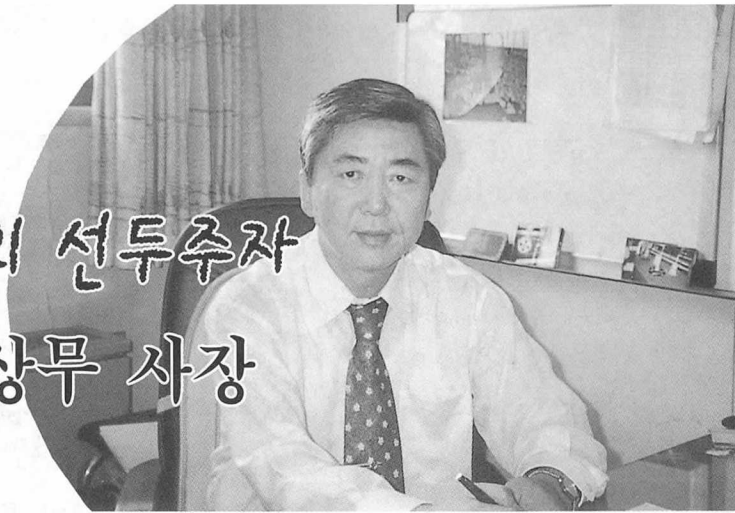


# 축산기자재 업계의 선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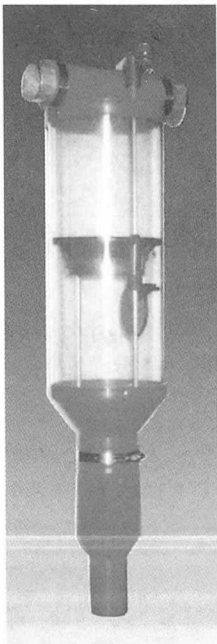
## 대일축산기계 심상무 사장



**누**구나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무척 힘든 것이다. 더구나 같은 경쟁업체와 상호 견제하면서 우위를 확보하고,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한시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지난 20여년을 축산기자재 개발에 몰두한 심상무 사장

대일축산기계 심상무 사장(54세,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8-12 신진빌딩 303호, 02-296-7575)은 지난 20여년간 축산기자재 개발과 제작을 꾸준히 해 온 국내 축산기자재 산업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심상무 사장은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심 사장이 8천만원의 투자비를 들여 국산개발에 성공한 모돈제단급이용 수직계량통. 이 제품은 기존의 추가 아닌 수직계량컵을 이용하였으며,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여년을 축산기자재 개발에 몰두한 대일축산기계 심상무 사장. 심 사장은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심 사장은 지난 71년도에 동국대학 농과대를 졸업하였으며, 73년에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74년부터 77년까지 가방 수출업체인 대통무역을 설립하여 운영한 바 있다. 그 후 심사장은 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78년도에 지금의 마장동 사무실 위치에 대일수지공업사를 창업하여 닭 사료통 및 급수기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축산기자재 산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계속 마장동에서 터를 잡고 제품을 생산해 오다 이 지역의 도시화에 밀려 90년도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에 대지 400평, 건평 8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이전하였으며, 현재 마장동에는 사무실만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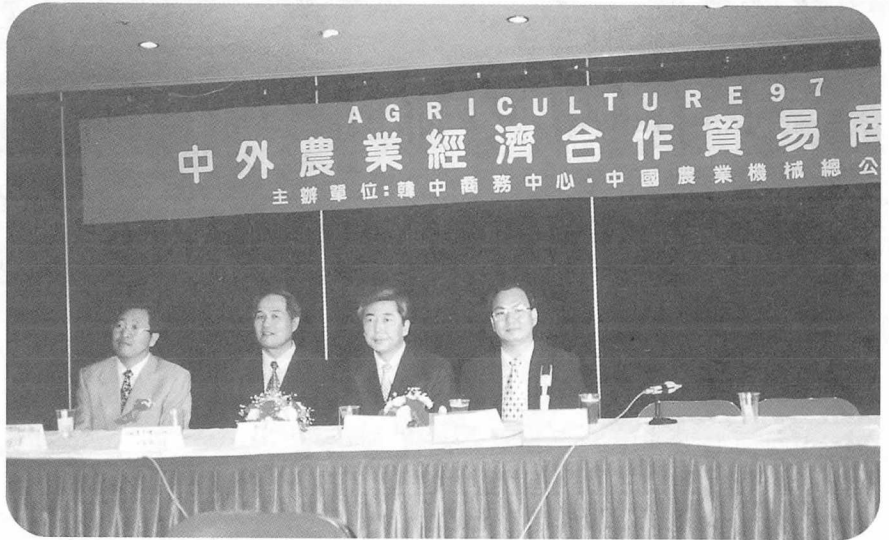
양돈관련 제품은 지난 93년부터 양돈자동급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부터 뛰어들게 되었으며, 주 제품은 사료이송 용도의 디스크형(44mm, 51mm)과 오거식(64mm) 두가지의 사료이송장치와 사료이송 파이프, 자동 콘트롤 박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대일축산기계의 매출액은 약 13억 정도이며, 회사는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료이송용 장치인 알미늄 코너(51mm)와 모돈용 제

한급이기인 수직계량통(51mm)을 8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국산으로 개발하는 등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알미늄 코너의 경우 사료 코너안에 사료가 끼지 않도록 고안되어 사료가 끼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수직계량통의 경우는 투명한 재질을 이용하여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의 추를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수직계량컵을 이용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하며, 모돈용 수직계량통의 경우 수입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



▲지난해 중국농업경제협력무역 상담차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농업기계총공사 부사장, 한중상무중심 사장과 투자상담하고 있는 심상무 사장(좌측부터 김용채 부회장, 장춘명 중국농업기계총공사 부사장, 심상무 사장, 한중상무중심 사장)

라 개당 1만2천원으로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양돈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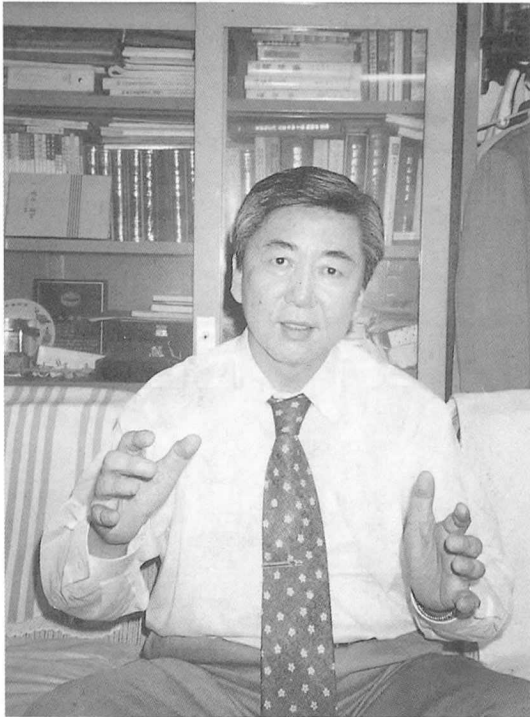


▲심 사장은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자재 협회 회원들간의 단합과 화합을 그 무엇보다 중시한다. 사진은 중국 천안문 광장앞에서(뒷줄 우측 세번째가 심 사장)

심 사장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아주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연구하여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국내 축산기자재업체의 나아갈 방향 제시

심 사장은 또한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회장 직무를 맡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국내 축산기자재 업체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일도 빠



◀심 사장은 한국의 축산기자재업체가 앞으로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축산 업체는 이미 그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심 사장은 말한다.

놓을 수 없는 심사장의 일이다.

“인화·단결·창조”라는 협회 이념처럼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지적 공동운명체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항상 협회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역설하는 심사장은 협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마다 하나의 토탈 시스템을 이루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돈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에는 기자재 업체별로 각자가 취급하는 제품을 가지고 양돈장과 따로따로 거래를 하지만 협회 회원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하우징 토탈시스템 회사를 만들어 각 기자재 업체를 하나로 묶어 표준화된 모델돈사를 농가에게 제공한다면 기자재 업체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심 사장은 협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축분처리 품질 인증제도, 조사료 생산 기계 품질인증제도 등을 추진하여 내년도(99년)부터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심 사장은 앞으로의 기자재 업체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내의 축산 기자재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국내 기자재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등으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분뇨처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어야

심 사장은 양돈농가가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 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뇨처리는 무배출·무방류로 해야 하며, 정부는 양돈농가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톱밥이나 야자박 등 외국에서 생산되는 수분조절재 등을 싼 값으로 농가들에게 제공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어 양돈농가가 분뇨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심 사장은 토끼 니플을 보이면서 “이 토끼 니플은 국내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만 있다”고 말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심사장은 “앞으로 1년 이내에 국내의 기자재 업체중 절반 정도가 탈락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후에는 시장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외국시장도 열심히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취재 : 이병석> **養豚**